

지역 소식통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브랜드 활성화 주력

미식도시 고창군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브랜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고창의 우수한 자연과 오랜 역사, 질 좋은 식재료와 정인정신의 손맛을 보유한 외식업소를 고창의 대표 미식 관광지로 발굴하고, 국내외 모든 관광객에게 다양한 고창의 맛을 널리 알리는 게 사업의 주목적이다.

고창군은 땅(地), 물(水), 불(火)을 주제로 하는 고창군의 대표 맛집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15업체의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낸 홍보 책자 제작과 맞춤형 역량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브랜드를 강화했다.

지난 26일 고창군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 참여 외식업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고창의 식문화를 활용한 밥상 계획 등이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지난 28일 제32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비롯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동의안 3건, 규칙안 2건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문찬기 의장은 "코로나19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세밀한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될 것과 부안 발전을 견인한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는 명절인사를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정읍시, 코로나19 방역·민생경제 중심... 종합상황실 운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설 맞출혈로 보완·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종합 상황반을 비롯해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선별 진료, 역학조사 등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연휴 기간 중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읍시청 당직실과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남권추모공원의 봉안

당은 동시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출입자 소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음식점 등 고위험·중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특히,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안군, 설 명절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설 명절 전후 특별방역 실시로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은 이번 명절연휴가 5일로 기간이 길어 귀성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한 지역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긴장의 수위를 높여 명절연휴 전

후로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27일 방문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터미널, 시가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부안군 시가지는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회원 등 7개조 30여명으로 방역소독반을 편성해 집중소독을 실시했으며 면소재지는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 방역소독에 집중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읍 중심 미래 핵심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 사업비 2827억원 투입

고창군이 사업비 2827억원을 투입해 고창읍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 문화·생태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한다. 생물 다양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고인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드벤처 조성 사업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계획이다. 또한, 고인돌 유적에 관광자원과 세계문화유산 자원을 연계해 각광 받는 자연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해, 고인돌 박물관 앞 부지를 활용한 군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천년의 숲을 조성하고, ▲고창 군립미술관 신축으로 군민 문

화 소양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계획 중이다. 고창읍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소리 명창거리 ▲민속놀이 체험시설 ▲한옥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관소리를 테마로 한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방장산 양고살재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게 될 것이며, ▲모리리공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고창읍 석교리) ▲문수산 편백숲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옛도심지역 도시재

생 뉴딜사업과 ▲모양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다. 군민 건강 복지와 건전 여가 활동을 위해 ▲고창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타구·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파크골프장(72홀)을 조성하고 있으며, 카페(레스토랑), 어린이골프체험장 등이 들어서는 ▲달빛노을을 조성하고, ▲고창읍사무소가 행정·문화·복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고창읍 가족 행복 지원센터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민지원금 찾아가는 지급창구 운영 등 설 명절 전 배부 최선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의 부안군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지급개시 3일 만에 78% 가량 지급을 완료했다. 이처럼 높은 지급률은 군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을 위해 군청 전 직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지급창구 운영 등이 주요했다. 군은 전 직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부안군

민지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고 빠르게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실제 군은 군민들의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부안군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이 관내 500여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신원확인 후 현장에서 지급했으며 마을별로 50~97% 가량 지급했다. 지급 첫날인 지난 24일 전체 군민 5만 788명 중 37%인 1만 891명에게 지

급을 완료했으며 이후 25~28일 이틀간 41%인 2만 814명 등 3일간 총 78%인 3만 9605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마을로 찾아가는 지급창구 운영기간에 부안군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민은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 직원이 수고를 해준 덕분에 현장지급 3일간 상당히 많은 군민들에게 부안군민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2년도 신규 강소농 교육생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強小農)'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영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규모의 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을 원하는 신규 농가는 오는 2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소농 교육 신청 대상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규모의 농업 경영체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과 경영기록장 작성, 경영 실습 등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해야 한다. 강소농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 추진되는 후속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